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철도가 걸어 온 길’, 9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철도의 날’을 맞아 9월 「이달의 기록」으로 ‘철도가 걸어온 길’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9월 18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양한 철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동영상 22건, 사진 30건 등 총 52건이다.

▶ 영암선 개통(1955), 천안역·대전역 낙성식(1959), 특급 무궁화호 등장(1960), 중앙선 디젤 기관차 등장(1962), 전철(전기열차)개통(1973), 철도 창설 80주년(1979) 수인선 협궤열차(1989), 경부고속철도 건설(1994) 등 동영상 22건

▶ 문경선 개통식(1955), 대통령 특별열차(1955), 한강 제3철교 개통 승차모습(1957), 서울역 4.19 기념 아치 야경(1961), 철도청 발족 현판식(1963), 서울역 추석 귀성객 전경(1977) 등 사진 30건



▶ 한강 제3철교 개통 승차모습(1957)



▶ 대전역사 준공식(1959)



▶ 대통령 특별 열차 내부(1955)



▶ 서울역 특급 무궁화호 명명식(1960)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1950년대 태백지역 산업철도 건설부터 1990년대 경부고속철도 건설까지 철도개통 및 주요 역사(驛舍)의 모습, 열차의 변화·발전상 등을 담고 있다. 철도개통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강원지역 지하자원 등을 운반하기 위해 개통된

영암선·문경선·함백선 등 산업철도의 개통, 6.25전쟁으로 끊어진 한강 제3철교의 복원, 1960~70년대 경인선 복선화와 정선선 등의 개통, 그리고 1990년대 경부고속철도 공사 등 다양한 철도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요 역사(驛舍)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8년 서울 남부역과 1975년 서울 서부역 준공, 1960~70년대 추석귀경 인파 등 서울역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파괴된 천안역, 대전역의 복구 낙성식을 비롯하여, 1960년대 부산역·광주역·군산역 등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열차의 발달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국내에서 조립한 객차, 1960년대 중앙선에 도입된 디젤기관차, 1973년 청량리-제천선에 등장한 전철(전기열차), 1994년 도입준비기의 경부고속열차 등 열차가 증기기관에서 디젤을 거쳐 전철, 고속철로 변모해간 모습과 통일호·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시대별 특급열차의 변화상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대통령 전용열차, 1960년대의 재건호, 태극호 그리고 1980년대의 수인선 협궤열차·신호열차·우정의 문화열차 등 다양해진 열차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 1958년 철도사고 방지캠페인 만화, 1961년 능의선 개통기념 승차증, 1963년 철도청 발족 현판을 거는 모습, 1967년 서울역에 비치된 기념스탬프 등 철도에 담긴 소소한 풍경도 확인할 수 있다.

‘추억의 가을 운동회’, 10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남녀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짝체조(1953)



▶ 이화여대 문리대 체육대회 신문학과 응원단(1962)

국가기록원은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가을 운동회’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0월 16일(화)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 제2회 서울경찰 체육대회 오토바이 묘기 (1963) ▶ 문화인 운동회 응원(1963)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등학교 운동회를 비롯한 다양한 가을 운동회 모습을 담은 것으로, 동영상 13건, 사진 27건 등 총 40건이다.

▶ 동영상 13건

- 학생운동회 : UN의 날 기념운동회(1960), 농촌의 가을-운동회(1963), 서울대 체육대회(1967), 초등학교 운동회(1986) 등
- 사회인운동회 : 제1회 어머니 대운동회(1957), 문화인 체육대회(1963), 언론계 종사자 친선체육대회(1967), 한민족 체육대회(1989) 등

▶ 사진 27건

- 학생운동회 : 남녀 중고등학생 체육대회(1953), 이화여대 문리대 체육대회(1962), 경희초등학교 운동회(1976) 등
- 육해공군 체육대회(1954), 철도 제63주년 체육대회, 문화인 운동회(1963) 등

가을이 무르익으면 학교와 직장 등에서 가을 운동회가 펼쳐졌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가을 하늘 아래 열린 학교운동회는 어린이보다 어른들을 더 설레게 하는 마을잔치였다. 또한 직장인 운동회, 어머니 운동회 등 각계각층의 사회인 운동회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동심으로 돌아가 가을을 만끽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운동회에 관한 기록에서는 한 농촌에서 마을잔치처럼 열린 초등학교 운동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온 유치원생들의 꼬마 운동회, 유엔 회원국의 가장행렬을 결단인 유엔의 날 기념 중·고생 운동회, 재미있고 화려한 응원을 자랑하는 대학 운동회 등 학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가을 운동회 풍경을 볼 수 있다.



국가 기록원 소식



National Archives of Korea

또한 지금도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는 달리기, 줄다리기, 구기종목 등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는 기마전, 차전놀이, 짚체조 등 이채로운 종목들도 만날 수 있다. 사회인 운동회에 관한 기록에서는 1950년대 고단한 살림살이에서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의 운동회를 비롯해, 1960년대 문화인, 언론인, 공무원 등 각계 각층에서 벌인 운동회, 1989년 재외동포들을 위해 처음 열린 한민족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회인 운동회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1963년 서울경찰 체육대회에서 오토바이 묘기를 하고 있는 경찰관, 매년 철도 창설 기념일에 열린 철도청 체육대회, 문화인 운동회에서 다양한 분장을 하고 열띤 응원을 벌이는 응원단 등 가을 운동회의 여러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준비의 시작, 김장풍경’, 1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겨울준비의 시작, 김장풍경’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1월 22일(목)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농촌의 김장담그는 모습, 김장시장의 풍경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영상 11건, 사진 14건 등 총 25건이다.

▶ 겨울을 맞이하는 시민들(1957), 한국농촌의 가을과 겨울맞이-김장(1963), 김장준비(1966), 올해도 풍성한 김장(1974), 김치(1974), 배추소비운동(1986), 94한국 김치대축제(1994) 등 동영상 11건

▶ 아현시장 김장배추(1956), 김장풍경(1957), 김장시장 전경(1963), 월동김장수송(1972), 가을철 김장시장(1975), 용산김장시장(1977) 등 사진 14건

‘기운이 크게 떨어지고 첫 눈이 온다’는 소설(小雪, 11월 22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때가 되면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김장담그기를 서둘렀다. 기나긴 겨울의 첫 맛이를 김장과 함께 시작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김장철을 맞은 시장,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 김장담그기 시연과 축제 등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겨울맞이 김장담그기 풍경을 담고 있다. 1950~60년대 기록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농촌과 도시 곳곳에 펼쳐진 김장시장과 소달구지에 김장용 배추를 실어 나르는 모습, 마을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고 김장독에 정성들여 김치를 넣는 모습 등 김장철의 바쁜 손놀림과 생활풍경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김장을 담그는 군인들, 1960년대 서울 아현동의 시장거리 사



❶ 소 달구지로 배추를 나르는 모습(1957)



❷ 아현동 김장시장 전경(1963)



❸ 화물열차에서 김장용 배추를 내리는 모습(1972)



❹ 용산 김장시장에서 배추를 운반하는 소형 화물차(1977)

진 등 이채로운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기록에서는 김장채소의 풍작으로 시민들이 시름을 덜고, 5인 가족이 1만원이면 김장을 담글 수 있다는 소식, 트랙과 기차를 동원해 배추와 무를 실어 나르는 풍경, 전통적인 김장법과 다양한 김치의 종류를 소개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영상 등 각양각색의 김장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1980년대 기록에서는 핵가족화 등으로 점차 김장 담그는 집이 줄어드는 반면, 김치를 산업화하여 공장에서 담그는 모습, 풍작이 든 해에 배추 더 사기 운동, 배추·무 특별요리 강습회 등 소비진작운동이 펼쳐진 모습 등 변화하는 김장문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밖에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를 세계화하기 위해 1994년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한국 김장 대축제 현장 등 김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윤보선 前 대통령 기록물·유품 대통령기록관에 위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9월 13일(목) 안국동 소재 윤보선 전 대통령 사저에서 장남 윤상구씨 등 유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 기록물 약 13,462건(문서 950건, 간행물 10건, 책자 316건, 시청각 10,323건, 박물 1,863점 등)에 대한



❶ 퇴임 후 사저에서 착용하던 모자



❷ 퇴임 후 사저에서 착용하던 안경



❸ 제4대 대통령당선 통지문(1960. 8. 12)



❹ 1970년, 1982년 발급한 공역귀 여사 여권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위탁된 기록물은 그 동안 사저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보존 환경이 열악해 영구보존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록물이 첨단 시설을 갖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통령기록관에 위탁된 윤보선 전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재직 시 기록뿐만 아니라 퇴임 후의 활동까지 생생히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임 시 생산 기록물에는 백낙준 참의원의장 명의의 제4대 대통령 당선 통지문(1960.8.12) 원본, 윤보선 대통령 취임선서(1960.8), 대통령 공보실에서 생산한 대통령 재임기 활동 사진(1960~1962) 등이다. 그리고 퇴임 후 기록물은 1970년대~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성명서와 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윤보선 전 대통령이 생전에 착용했던 모자와 안경, 서랍 등 관련 유품은 대통령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문화가정 초청 한국사랑 기록탐방 개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지난 9월 21일 베트남 출신 등 다문화가정 40명을 초청하여 『한국사랑 기록탐방』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나라기록관에서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을



국가 기록원 소식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기록문화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기록탐방은 '기록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죽간제작 체험' 및 '국가기록전시관·기록문화체험학습장 견학'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답사'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죽간제작 체험은 종이를 사용하기 전 종이 대용으로 쓰였던 죽간을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 자신만의 기록을 남겨보는 실습을 하고, 국가기록전시관 및 기록문화체험학습장에서는 국새 및 역대 대통령 수결 찍기 및 훼손된 사진 복원하기 등 다양한 기록문화를 체험하였다. 또한, 수원 박물관, 수원화성 등을 답사하였다.

국가기록원, 국립소록도병원 기록관리 협약 체결



○ 국립소록도병원과 업무 협약식 체결



○ 업무 협약식 기념촬영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병원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의 복원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국립소록도병원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자혜병원'으로 설립되어 2016년 개원 100주년을 맞이함).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월 1일(목)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 100주년 역사 기념사업 기록물 지원'을 위한 기록관리 협약을 맺었다. 국가기록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국립소록도병원은 '보리피리'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하운 시인의 보리피리 시집(1955) 등 한센인 관련 주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한하운 시인은 한센병에 걸려 끼니를 잇지 못하고 일반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자신의 눈물겨운 심정을 시로 표현했다.

“보리 피리 불며/봄 언덕/고향 그리워/파-르닐니리/중략/보리 피리 불며/방랑의 기산하(幾山河)/눈물의 언덕을 지나/파-르닐니리”라는 시구에서 보듯, 보리피리를 불며 인간적 고독과 천형(天刑)과도 같은 괴로움을 달래는 아픔을 읽을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하운 시집 이외에 일제강점기 생산된 소록도 갱생원 연보(1941), 국립소록도병원 운영 규정과 한센병 치료기구 등 역사적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기록관리 시설이 열악해 주요 기록물 대부분이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43년 동안(1962~2005) 헌신적으로 봉사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수녀님과 마거릿 수녀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동판을 함께 전달했다.

국가기록원, 독도 관련 지도 복원 완료



○ 복원 전 지도 상태



○ 복원 후 지도 모습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가 국가기록원에 의해 복원되었다. 이번에 복원한 지도는 1936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지도구역일람도'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도가 훼손되어 국가 주요 기록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기 위해 복원·복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도구역일람도'는 일본 정부의 권위 있는 지도제작 기관인 육군 참모본부 직속 '육지측량부'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과 일제의 점령 지역이었던 조선을 비롯해 대만·북해도 등을 구역별로 정확히 표기하고 있다. 특히 '조선 구역'에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정확히 표기하고, '조선 구역'과 '일본 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려 놓았다.

이번에 복원된 지도에 대해 독도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인정한 핵심적 기록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신용하(울산대 석좌교수) 독도학회 회장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국이 일제 식민지를 해체할 때 이 지도

등을 근거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인정했던 중요한 기록물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장 이상태 교수는 “이 지도를 발행한 육지측량부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직속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기구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행한 지도에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한 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지도는 제작 당시 양면에 인쇄되었으나, 이후 뒷면에 종이를 덧붙여서 액자를 만들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국가기록원은 뒷면에 덧붙인 종이를 제거하고 초음파 봉합 처리 등으로 기록물을 복원 처리해 원래 지도 상태로 복원했다. 또한 복원된 기록물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제본을 제작했다.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개선 포럼」 개최



○ 제9회 기록관리 포럼



○ 분임별 토의 모습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30일(화), 중요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개선을 위해 「제9회 기록관리 포럼」을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44개 중앙부처와 시·도의 기록물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국가 주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정부기능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책정한 보존기간을 일제히 분석한 결과, 한시보존 기록물 대상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조정하여 책임행정이 보다 더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기록원 소식



2012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발표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30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443개 공공기관이 2011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기관에는 법무부, 전라북도교육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및 한국석유공사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5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분야의 23개 지표에 대하여 실시했다.

평가절차는 1차로 기록관리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2차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관 유형별로 S, A, B, C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우수한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88.4점, 83.9점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했으며, 이로써 2008년부터 매년 기록관리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등은 각각 전체 평균이 61.1점, 68.2점으로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평가는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접관리기관 등 구분하여 실시한 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7개 기관이 S등급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S등급 기관이 없었으며, 시·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이 S등급을, 교육지원청은 인천동부, 인천북부, 서울남부, 충북충주, 충북청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이 S등급을, 직접관리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0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우수한 평가 점수를 받은 기관에게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경남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속기관

* 직접관리공공기관 :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생산되는 기록관리 수량 및 기관규모 등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지정·고시한 기관

National Archives of Korea

보성 강골마을 제5호 기록사랑마을 지정



● 기록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 기록사랑마을 표지석 제막식

국가기록원은 전남 보성군 강골마을을 제5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1월 29일 국가기록원장, 보성군수 및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사랑마을 지정식을 개최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식 행사는 국가기록원과 보성군 간 '기록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록정보 공동 활용 교류 협약식'과 제5호 기록사랑마을 표지석 제막식, 기록사랑마을전시관 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민간기록물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고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해 왔다.(기록사랑마을 : 제1호 강원도 함백역, 제2호 파주시 파주마을, 제3호 제주도 안성마을, 제4호 경북 덕동마을)

이번에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보성 강골마을은 지난 100여 년의 마을 역사를 알 수 있는 원암공유목(1899년경), 소작대장과 농사일기, 1960~80년대 교과서와 잡지 등 주요 기록물 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이용옥 가옥에서 발굴된 1900년대 전후반 고문서와 증조부 감찰기록, 소작증과 소작료 장부를 비롯해 이식래 가옥과 아치실댁의 각종 영수증, 농사일기 등은 농촌사회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800년대 말부터 주고받은 서신, 공립중학교 졸업장, 중학 입학고사 시험지, 교과서, 사진 앨범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마을의 장례문화를 알 수 있는 장례용품 등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열화정(제162호)과 이금재 가옥(제157호), 이용옥 가옥(제159호), 이식래 가옥(제160호) 등 마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